

Cùm

함께 꾸는 우리의 꿈(Cùm)
Cùm은 라틴어 전치사로 '~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Cùm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길 꿈꾸며...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이!(마태 25,21) ”

발행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편집 청소년사목국 629-8740 주소 483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www.puna.kr 인쇄 주보인쇄사(809-2078~9)

말씀초대

CÙM 친구들, 안녕? 우리는 이따금씩 큰 선택이나 도전을 마주하게 돼.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 가령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과연 득이 되는 일일까?' 등등.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불신, 긍정과 부정, 확신과 불안,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자.



영상 시청하기



중국의 최대 부호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했어.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떠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어떠한 시작도 못 할 때가 많지.



물론 이 말은 마윈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견해야. 가난하다고 모두가 그렇진 않아. 그러나 한 번 즈음은 새겨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어? 한 번 되돌아보며 이번 주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어보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 ◎ 아멘.

말씀 듣기

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복음 : 마태 25,14-30

천천히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느끼며 읽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주
Summary

1 독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내는 성실히 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야. 이런 여인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을 거야.

복음

탈렌트의 비유

주인은 탈렌트로 벌이를 한 두 종들을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며 자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했어.

1 독서

훌륭한 아내

1독서는 잠언의 말씀으로, 어떤 여인이 훌륭한 아내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잠언에 따르면 항상 성실히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여인이 훌륭한 아내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 아말로 칭송을 받을 훌륭한 아내라고 알려주고 있어.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30절)



그리고 주인은 맡긴 탈렌트로 더 많은 탈렌트를 번 종들을 칭찬했어. 여기서 벌어난 양은 중요하지 않아. 주인은 다섯 탈렌트와 두 탈렌트를 더 벌은 종들에게 같은 칭찬을 했기 때문이야.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23절) 이렇게 주인은 종들을 믿어주고 칭찬하는 분이야.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 그는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도리어 종들을 벌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주인을 생각했어. 그래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탈렌트를 그냥 숨겨 줄 수밖에 없었지. 결국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가진 것마저 빼앗긴 채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되었어.

복음

탈렌트의 비유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대해 탈렌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아.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은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긴 거야.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지.

Matthew 25:14-30

The PARABEL of JESUS

"the Talents"

"For to everyone who has will more be given,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이렇듯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먼저 나를 믿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 그렇기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일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지. 그때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거야.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23절)

말씀 나누기

1.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 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2. 누군가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기쁘게 해 본 일이 있나요?
나를 믿어준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기쁘게 했나요?

정오의 Cum toon



정오/홍눈술 잔다르크 @pray_at_noon

60' 묵상

기도 시작 전

마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기도

저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헛되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속에서
많은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 마무리

마음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 영성체 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N **연중 시기**
작은 변화! 작은 도전!

"괜찮아요!" 일회용품 제공을 거절해 보아요.
(종이컵 250개를 만드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해요.)